

# TSG

월간

2022

11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대구의 왕' 세징야,  
스스조가 증명한  
왕의 자질**

03 K리그 월간 데이터·순위

06 K리그 월간 오버뷰

08 [TSG's 픽] 베스트 팀

'10월 파이널B 최다 승점',  
대구는 대구 다올 때  
가장 강하다.

12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대구의 왕' 세징야,  
스스로가 증명한 왕의 자질

16 [TSG's 픽] 베스트 매치

울산의 세 번째 별이 보이던 날,  
10월 8일의 비망록.

20 TSG 기술위원 칼럼

K리그2 전술 트렌드 2022  
<김호영 기술위원>

24 TSG's TOPIC

인생을 걸었던 대전의  
K리그1 승격, 그 뒤에 숨겨진  
이민성 감독의 전술



K LEAGUE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발행처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 BEPRO11

기획 | K리그 TSG

편집 및 디자인 | 그래픽레시오

사진 | FPhotos

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 2022년 11월 15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F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BEPRO11의 K리그 부가 기록 기준에 따릅니다.

K리그 1 최종 순위표






			경기 수	승점	승	무	패	득실
1		울산현대	38	76	22	10	6	24
2		전북현대	38	73	21	10	7	20
3		포항스틸러스	38	60	16	12	10	11
4		인천유나이티드	38	54	13	15	10	4
5		제주유나이티드	38	52	14	10	14	2
6		강원FC	38	49	14	7	17	-2
7		수원FC	38	48	13	9	16	-7
8		대구FC	38	46	10	16	12	-7
9		FC서울	38	46	11	13	14	-4
10		수원삼성	38	44	11	11	16	-5
11		김천상무	38	38	8	14	16	-3
12		성남FC	38	30	7	9	22	-33

K리그 2 최종 순위표

			경기 수	승점	승	무	패	득실
1		광주FC	40	86	25	11	4	36
2		대전하나시티즌	40	74	21	11	8	25
3		FC안양	41	69	19	13	9	11
4		경남FC	42	56	17	9	16	0
5		부천FC1995	41	61	17	10	14	7
6		충남아산FC	40	52	13	13	14	-5
7		서울이랜드FC	40	48	11	15	14	-1
8		김포FC	40	41	10	11	19	-26
9		안산그리너스	40	37	8	13	19	-18
10		부산아이파크	40	36	9	9	22	-18
11		전남드래곤즈	40	36	6	17	17	-11








K리그1 득점 데이터		xG	슈팅	득점	득점/xG	실 득점 - xG
1	 전북현대	9.35골	69회	8골	0.86골	-1.35골
2	 울산현대	8.53골	67회	7골	0.82골	-1.53골
3	 제주유나이티드	7.86골	72회	6골	0.76골	-1.86골
4	 수원삼성	7.48골	51회	8골	1.07골	+0.52골
5	 FC서울	6.50골	46회	4골	0.62골	-2.5골
PK득점 및 상대 자책골은 득점, xG값에서 제외						

K리그1 점유 데이터		점유율	평균 패스 횟수	시퀀스당 패스	시퀀스당 시간	시퀀스 전개 속도
1	 김천상무	67.2%	692회	5.3회	16.8초	8.3m/s
2	 포항스틸러스	57.2%	566회	4.3회	13.0초	8.2m/s
3	 울산현대	55.3%	521회	4.0회	13.0초	8.7m/s
4	 FC서울	54.6%	542회	4.3회	12.9초	9.5m/s
5	 성남FC	54.4%	489회	3.6회	12.1초	10.2m/s

K리그1 압박 데이터		압박 강도(PPDA)	획득	공격 지역 획득	인터셉트	태클(성공)
1	 김천상무	5.78	49.6회	14.4회	38.6회	6.6회
2	 포항스틸러스	7.90	54.4회	14.2회	37.2회	8.0회
3	 성남FC	8.11	55.0회	16.8회	35.0회	8.8회
4	 제주유나이티드	8.35	57.2회	18.2회	31.2회	8.0회
5	 FC서울	8.95	43.4회	11.6회	36.6회	7.0회

K리그2 득점 데이터		xG	슈팅	득점	득점/xG	실 득점 - xG
1	 FC안양	5.93골	53회	2골	0.34골	-3.93골
2	 대전하나시티즌	5.88골	42회	8골	1.36골	+2.12골
3	 서울이랜드FC	5.86골	53회	3골	0.51골	-2.86골
4	 전남드래곤즈	5.75골	55회	6골	1.04골	+0.25골
5	 경남FC	4.38골	45회	6골	1.37골	+1.62골
PK득점 및 상대 자책골은 득점, xG값에서 제외						

K리그2 점유 데이터		점유율	평균 패스 횟수	시퀀스당 패스	시퀀스당 시간	시퀀스 전개 속도
1	 FC안양	58.5%	509회	3.5회	11.1초	10.2m/s
2	 부산아이파크	58.0%	484회	3.5회	11.2초	11.9m/s
3	 광주FC	57.2%	457회	3.3회	10.9초	9.8m/s
4	 전남드래곤즈	55.3%	461회	3.2회	10.6초	11.2m/s
5	 대전하나시티즌	54.3%	471회	3.2회	10.1초	10.8m/s

K리그2 압박 데이터		압박 강도(PPDA)	획득	공격 지역 획득	인터셉트	태클(성공)
1	 광주FC	5.81	59.7회	13.3회	33.7회	5.3회
2	 FC안양	5.89	61.0회	19.0회	42.0회	6.3회
3	 대전하나시티즌	5.95	59.5회	13.7회	42.5회	9.0회
4	 부산아이파크	6.15	52.5회	9.5회	38.5회	7.5회
5	 부천FC1995	6.67	59.0회	11.3회	37.3회	7.3회

# K LEAGUE OVERVIEW

‘하나원큐 K리그 2022’가 막을 내렸다. 올해는 카타르 월드컵 일정으로 평소보다 이른 시기에 시즌을 마쳤다. 울산이 17년 만에 K리그1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인천은 구단 사상 최초로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하위권에서는 수원과 김천이 각각 안양과 대전을 상대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희비가 엇갈렸다. K리그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사건과 기록이 쏟아져 나온 한 해였다.



## 마침내 K리그 왕좌에 앉은 울산

울산이 17년 만에 K리그1 우승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9월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해 시즌 말의 악몽이 다시 찾아오게 했으나, 이후 파이널 라운드에서 성적을 회복해 우승을 확정 지었다. 분수령이 된 경기는 단연 35R 전북전이었다.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뽑아내며 역사적인 2-1 승리를 따냈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2위 전북과의 승점 차이를 8점으로 벌리며 이후 37R 강원전에서 K리그1 우승을 확정짓는데 성공했다.



## ‘구단 최초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인천은 아시아로 향한다

한편 4위 인천은 구단 사상 처음으로 ACL에 진출했다. 이번 시즌 9년 만에 파이널 진출이라는 호성적에 이어 ACL 진출까지 이뤄낸 것이다. 인천은 파이널 라운드에서 1승 2무 2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4위 경쟁팀 제주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순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2위 전북이 FA컵 우승을 거머쥔 덕에 4위 인천이 아시아 무대로 향하게 됐다.



## 무너진 다크호스 김천

한편 강등권에서는 김천이 다시 K리그2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시즌 초 김천은 K리그1에서 가장 위협적인 다크호스로 손꼽히는 팀이었다. 박지수, 권창훈, 이영재, 김지현 등의 수준급 자원이 준비해 여러 K리그1 팀들을 위협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시즌 내내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승강 플레이오프로 향하고 말았다. 이후 대전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2연전에서 합계 6-1로 맥없이 무너지며 K리그2 강등이라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 승격의 끝자락에서 좌절을 맛본 안양, 내년을 기약하며

안양은 수원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최종 패배하며 승격의 끝자락에서 좌절을 맛보고 말았다. 2차전에서까지 1대 1 점전을 이어가며 안양 승격의 꿈이 실현되나 했으나, 경기 막판 오현규에게 골을 내줘 승격의 꿈을 다음 해로 기약하게 되었다. 안양으로선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시즌 말이었다. 9-10월 정규 리그에서는 8경기 3승만을 거두며 3위 자리에 그쳤으며, 수원과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다.



## 충분히 아름다웠던 충남아산의 플레이오프 도전

K리그2 중위권에는 충남아산이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시즌 내내 호성적을 거두며 경남과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두고 경쟁했으나, 마지막 9-10월에 주춤하며 최종 순위 6위로 시즌을 마감하고 말았다. 충남아산은 9-10월에 펼쳐진 리그 8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며 시즌 중 가장 부진한 시기를 보냈다. 비록 이번 시즌 충남아산의 플레이오프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구단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 그야말로 다사다난, 전남 최하위로 시즌 마무리

이번 시즌 전남의 순위를 최하위로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지난 시즌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올해 AFC 챔피언스리그(ACL) 무대까지 진출하며 새 역사를 기대했으나,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내고 말았다. ACL을 병행해 선수단 컨디션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 화근이었다. 전반적으로 폼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여기에 시즌 중 내던진 ‘감독 교체’라는 승부수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며 K리그2 최하위로 2022시즌의 문을 닫게 됐다.



대구는 K리그 내에서 전술적 색채가 가장 뚜렷한 팀 중 하나다. 백3 기반의 빠른 역습 축구를 구사하며, 경기 시간 중 대부분을 수비 상황으로 보낸다. 이는 안드레 감독 시절부터 이어진 대구의 뚜렷한 '팀 컬러'다. 대구는 2019년 안드레 감독 시절에도 에드가와 세징야, 김대원을 내세운 빠른 역습 축구를 구사했으며, 3-4-3과 3-5-2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백3 기반의 수비 축구를 펼쳤다. 2019년 수석코치였던 이병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지난 2021년에도 이를 바탕으로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리그 3위를 기록했다. 대구라는 구단은 '백3'라는 팀 컬러 아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온 것이다. 최원권 감독대행이 이끈 이번 10월은 대구가 가장 '대구 다운' 모습을 보인 한 달이었다. 대구는 3-4-3 기반의 확고한 역습 축구를 펼치며 파이널라운드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 10월 파이널라운드 최다 승점 대구는 대구 다운 때 가장 강하다.

## 가장 '대구 다운' 모습의 핵심 세징야와 제카

가마 감독 시절 대구는 볼 소유에 중점을 뒀던 경기를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려 했다. 선수 개인보다는 팀 전체를 통해 볼을 소유하려 했으며, 전반적으로 라인을 높여 경기했다. 실제로 가마 감독은 동계 훈련 때부터 팀에 대해 "대구는 너무나도 내려앉아 있다. 만들어가는 경기를 하고 싶다."라는 진단을 내리며 대구의 전술 스타일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가마 감독 시절 세징야는 프리롤이 아닌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 센터백은 측면으로 넓게 벌려 볼이 위치한 진영 쪽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려 했으며, 중원에는 이 용래나 페냐 같은 플레이메이커 유형 선수를 적극 기용하여 볼이 돌 수 있도록 했다. 보다 큰 틀에서 놓고 보자면 공격 시 세징야의 영향력을 줄이고, 센터백까지 골고루 볼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원권 감독 대행은 이러한 가마 감독 체제와 다르게 보다 간결한 공격을 추구하는 편이다.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기 보다 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투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도 공격보다 수비에 능한 이진용과 황재원을 함께 기용하는 터라, 공격 시 중원에서 유려한 빌드업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가마 감독 시절 대구의 평균 점유율은 43%였으나 최원권 감독 대행 체제에서는 단 34.1%에 지나치지 않는다. 4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한 경기가 없으며, 최저 점유율은 단 28.7%다. 대구가 3-0 완승을 거



둔 33R 서울전 기록이다.

여기에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술을 구성하는 것이 최원권 감독 대행의 차이점이다. 핵심은 세징야와 제카다. 이 둘은 매우 뚜렷한 강점을 지닌 공격 자원들이다. 대구는 늘 그랬듯 공격 시 3-2-5 대형을 형성한다. 기존 3-4-3에서 양 윙백이 높게 전진한 형태이며, 대형 자체는 일반적인 3-4-3 팀들과 크게 다를 것 없다. 다만 가마 감독 때와의 차이점이라면 센터백의 빌드업 영향력이 다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세징야는 보다 연결 고리 역할에 치중하며 공격 상황에서 영향력을 더욱 늘리기 시작했다. 볼이 공격 1/3 지점으로 넘어왔을 때 상대 수비-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에서 공간을 얻어내려 한다. 이곳에서 제카와 고재현을 지원하거나 직접 슈팅을 시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제카와 고재현이 상대 수비라인을 눌러준다면, 세징야가 그 밑에서 공간을 얻는 방식이다.



세징야는 이날 팀의 중앙 공격수로 출전했지만, 볼이 공격 1/3 지점으로 넘어가자 상대 수비-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에서 공간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세징야와 제카는 상대에 따라 서로의 위치를 바꾸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제카가 중앙 공격수 자리에, 세징야가 왼쪽 윙어를 맡으나 상황에 따라 포지션을 바꿔 출전하는 것이다. 대개 서울, 김천과 같이 미드필더 라인의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할 때 세징야가 중앙 공격수 자리에 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계에 능한 세징야가 중앙에 위치해 상대 미드필더 라인의 배후 지역에서 볼을 받아내기 위함이다. 이 경우 대구는 순간적으로 중앙 쪽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해 패스 옵션을 확보할 수 있다.

세징야가 연계에 대한 역할을 맡는다면 제카는 높이를 담당한다. 제카는 왼쪽 윙어 자리에 출전하더라도 언제든지 중앙으로 좁혀와 롭 볼을 받아낼 채비를 한다. 롭 볼을 떨궈주거나 빈 공간으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카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피지컬을 통해 상대 마크맨을 눌러줄 수 있어야 한다. 대구가 제카에게 롭 볼을 전개할 때면 주변의 세징야와 고재현, 그리고 양 윙백까지 빠르게 움직여 세컨볼을 따낸다. 뒷선에서 확고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가 상대 수비보다 먼저 움직여 세컨볼을 따낼 수 있는 것이다.



후방에서 롭 볼이 넘어오면 제카는 피지컬을 통해 상대 수비를 눌러준다. 이를 통해 동료들의 채도를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공간 채도와 위치 선정에 강점을 갖춘 고재현은 이러한 대구 공격라인 역할 분담에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다. 세징야와 제카가 발밑-높이 쪽에서 연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고재현은 마무리에 치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번 시즌 고재현은 리그에서 13골을 뽑아내며 팀 내 최다 득점자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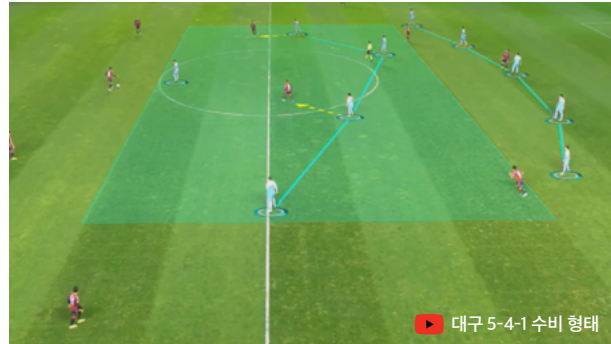
단적인 예로 위 영상의 수원FC전 득점 장면을 되돌아보자. 제카가 상대 수비를 눌러 후방에서 넘어온 롭 볼이 빈 공간으로 흘러간 상황. 이때 고재현은 자신의 마크맨인 잭슨보다 뒤에서 출발했지만, 롭 볼이 넘어갈 것을 알고 빠르게 박스 안으로 채도해 들어가 팀의 첫 번째 득점을 뽑아내는데 성공했다. 제카가 높이에 대한 역할 분담을 맡고 고재현이 예측력과 스피드를 통해 공격의 방점을 찍은 골 장면이었다.

대구는 이러한 제카와 세징야의 개인 성향을 극대화해 1선으로 최대한 빠르게 볼을 연결한다. 이번 시즌 대구는 최원권 감독 대행 체제 아래에서 전체 패스 중 무려 33%가 '공격 지역으로의 패스'로 시도되었다. 평균 286회의 패스 중 96.4개가 공격 지역으로 시도된 패스이다. 이는 동일 기간 내 K리그1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며, 점유율 수치 역시 가장 낮다.

## 다시 돌아온 대구의 견고함

한편 수비 시에도 전술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늘 고수해왔던 5-4-1 대형을 형성하며 후방 센터백의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공격을 밀어낸다. 단, 가마 감독 시절과의 차이점이라면 전방 압박의 빈도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이다. 가마 감독은 보다 공격적인 경기를 위해 울산과 같이 후방 빌드업의 빈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펼쳤다. 대개 5-4-1의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올려 전방에 4명의 선수가 압박을 가했으며, 나머지 미드필더 한 명은 중원에 머물러 3명의 센터백과 함께 후방을 지키는 형태를 보였다. 두 중앙 미드필더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전방 압박 상황에서의 밸런스를 유지한 것이다.

최원권 감독대행의 대구는 라인을 내리고 보다 중원 쪽 공간을 틀어막는데 치중하는 편이다. 타이트한 간격을 형성하며, 선수들



대구의 5-4-1 수비 형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쪽에서의 역할 분담이 눈에 띈다.

개개인의 활동 범위를 넓혀 수비 진영 속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가한다. 대구는 가마 감독 시절 9.4의 압박 강도를 기록했지만 최원권 감독 대행 때에는 단 13.4 만의 수치를 보였다. 전반적인 압박 강도 자체를 낮춰 보다 '대구 다운' 플레이 스타일을 확립한 것이다.

최근 대구의 5-4-1 수비 형태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라인에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최전방 공격수와 미드필더 라인은 하프 스페이스-중앙 공간을 압박하는데 집중한다. 일차적으로는 넓은 간격을 형성하더라도, 상대 공격이 중앙으로 전개될 경우 중원으로 밀집한다. 이때 가장 큰 특징은 윙어와 중앙 미드필더 모두 상대 중앙 선수를 자유롭게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 미드필더가 나서 상대 공격을 밀어낼 수도 있으며, 윙어가 좁혀와 중원 쪽에서의 수적 열세를 방지할 수도 있다. 관건은 미드필더 라인 전반적으로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중앙 옵션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원권 감독 대행 체제 아래에서 '이진용-황재원'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가장 자주 기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진용과 황재원은 모두 넓은 활동량을 통해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들이다.

최후방의 백5 라인은 미드필더 라인의 이러한 수비 형태에 맞춰 반응하는 편이다. 우선 양 윙백은 측면을 미리 선점해 상대의 측면 패스에 대응할 채비를 한다. 상대가 중앙 옵션을 얻지 못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한다면, 빠르게 튀어나와 상대 선수를 누르는 것이다. 대구의 윙백은 측면으로 나서야 한다는 확실한 인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압박에 나설 수 있다.

한편 최후방 3명의 센터백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맞추려 하기 보다는 상대 공격수의 침투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순간적으로 라인이 무너질 수 있더라도, 상대 후방 자원이 킥을 시도하려 한다면 빠르게 몰려서 롭 볼에 대응한다. 이 경우 순간적으로 수비-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이 벌어져 상대의 중앙 패스에 취약할 수 있으나, 미연에 뒷공간 침투를 방지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이는 대구의 미드필더 라인이 상대 중앙 공격 옵션을 내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이다.

종합해보자면 대구의 5-4-1 수비는 크게 세 파트로 정리할 수 있다. 전방 5명의 톱-미드필더 라인과 측면의 양 윙백, 그리고 최후

방 세 센터백이다. 전방 미드필더 라인 쪽에서는 중앙을 틀어막아 상대의 중앙 옵션을 제한한다. 이 경우 상대의 공격 옵션이 측면과 뒷공간 2가지가 되며, 대구의 양 윙백과 최후방 센터백이 이 2가지 선택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모든 필드 플레이어들이 움직임에 대한 전술적 약속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구의 가장 큰 강점이다.

만약 상대가 대구의 수비-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으로 볼을 투입했을 때면 후방 선수들이 빠르게 반응하여 이 지역을 통제한다. 우선 최후방의 센터백이 빠르게 나서 상대를 지연한다. 앞서 얘기했듯 대구의 센터백은 상대 뒷공간 침투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나, 킥이 뒷공간이 아닌 자신의 앞으로 왔을 때면 빠르게 몸의 방향을 틀어 자신의 앞 지역을 수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대구의 미드필더는 센터백이 상대 공격을 지연할 때 빠르게 내려와 이를 서포트해주는 역할이다. 볼 소유자를 사방으로 감싸 공격 옵션을 막아서고, 최종적으로는 볼을 탈취해내는 것이 수비의 목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구의 양 윙어까지 내려와 후방 수비에 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위 김천전 영상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상대가 대구의 라인 사이 지역으로 킥을 넣자, 반대 윙어인 고재현이 중앙 미드필더 지역까지 빠르게 내려와 볼을 탈취해내는 데에 성공했다. 이때 측면의 양 윙백 역시 빠르게 좁혀와 대구 수비라인의 빈 공간을 메워줘야 한다.

2022년은 대구의 근 몇 년 중 가장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시즌 초 에드가의 부상 이탈, 주축 미드필더 라마스의 이적, 시즌 중 감독 교체, 그리고 리그 12경기 연속 무승까지. 대구는 고작 1경기만을 남겨두고서야 비로소 잔류를 확정 지었다. ACL 16강 진출과 FA컵 4강 진출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리그 순위가 좋지 않으니 되려 컨디션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 시즌의 모든 수난을 뒤로하고 대구는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에 성공했다. 최원권 감독대행은 대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다시 입혀 리그 막판 스퍼트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대구가 가장 좋은 성적을 가둔 10월 한 달은, 대구가 가장 '대구 다운' 모습을 보인 날들이었다.

대구는 대구 다올 때 가장 강했다. **K**



대구의 수비 진영은 라인 사이 지역으로 볼이 투입됐을 때 빠르고 강하게 반응한다.





# ‘대구의 왕’ 세정야, 스스조가 증명한 왕의 자질

최고 수준의 선수에게도 한 시즌 정도는 주춤할 때가 있기 마련이다. K리그 최고 외국인 선수 세정야에게는 이번 시즌이 ‘쉬어가는 해’가 아닌가 했다. 4월 한 달을 모두 부상으로 날리며 K리그와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으며, 6-8월에는 개인적인 침체기를 겪었다. 2018년 이후로 가장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을 정도로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늦여름이 지날 무렵, 대구의 왕 세정야는 우리가 알던 모습과 조금 달랐다.

세정야는 9월을 기점으로 폼이 크게 올라오기 시작했다. 리그 경기를 풀타임으로 꾸준하게 소화하기 시작했으며, 9-10월 두 달간 리그 9경기서 6골 1도움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특히 마지막 10월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수원FC전을 제외한 모든 출전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대구 상승세의 1등 공신이 됐다.

## 대구의 전방 연결 고리

대구는 공격 시 매우 간결한 빌드업을 전개하는 팀이다. 최원권 감독대행 체제의 대구는 단 34.1%의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K리그 1 내 최저 수치다. 대구 자체가 본래 직선적인 공격을 추구하는 팀이나 최원권 감독 대행은 가마 감독 시절보다 더욱 빠르고 간결한 빌드업을 전개하는 편이다. 가마 감독 시절 대구의 평균 볼 점유율은 43%였다.

세정야는 3-4-3의 왼쪽 윙어나 중앙 공격수 자리에 위치한다. 상대 팀에 따라 제카와 위치를 바꾸며 왼쪽과 중앙을 모두 소화한다. 세정야는 최원권 감독대행 체제 아래에서 전방 연결 고리 역할을 소화한다. 대구가 매우 간결한 빌드업을 추구하는 탓에 2-3선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지는 않지만, 1선에 머물러 이곳에서의 연결 고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세정야는 상대 수비-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에 위치해 이곳에서 항상 볼을 받아내려 한다.

이번 시즌 세정야가 이러한 역할을 맡은 이유는 명확하다. 현재 대구에는 빌드업에 뛰어난 자원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수비에 무게 중심을 둔 ‘이진용-황재원’ 라인이 가동되며, 공격라인은 제카와 고재현이 맡고 있다. 고재현은 미드필더 출신이지만 이번 시즌 공격의 방점 역할에 더욱 강점을 보이고 있다. 1-3선에 모두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해 낼 선수가 없다 보니 세정야가 연계에 대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정야의 빌드업 시 역할. 상대 라인 사이 지역을 점유하다가도, 롱 볼이 전개될 때면 세컨볼을 따내기 위해 공간으로 침투한다.



세징야가 빌드업 상황에서 보이는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방에 위치하다 볼이 측면으로 갈 때 상대 수비-미드필더 라인 사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 수비 진영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탓에 세징야가 공간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상대 중앙 미드필더의 시야 뒤편을 점할 수 있다. 대구는 중원 쪽의 빌드업이 약해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징야는 왼쪽 윙어로 출전할 때도 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으로 들어와 볼을 받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만약 대구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지 않고 타겟맨 제카에게 롭볼을 시도한다면 재빠르게 상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빌드업 시 2-3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전방에만 위치하기 때문에 세컨볼 싸움에도 가담할 수 있는 것이다. 위 김천전 영상에서도 세징야가 대구의 중앙 미드필더 지역까지 내려오지 않은 덕에 이후 롭볼이 전개됐을 때 상대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 들어갈 수 있었다.

만약 상대 미드필더가 중앙 쪽의 세징야를 수비하는 데에 치중한다면 대구의 측면 윙백이 살아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상대 미드필더 라인이 움츠러들면서 자연스레 대구의 중앙 미드필더와 양 윙백에게 공간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구가 더 쉽고 빠르게 좌우 전환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양 윙백이 높은 지점으로 전진할 수 있다. 상대가 세징야를 너무 의식한다면 자연스레 대구의 측면 공격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공격 1/3 지점에서 이뤄지는 세징야의 위치 선정. 이때도 상대 수비-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을 노린다.

대구가 공격 1/3 지점으로 볼을 전개할 때면 세징야의 연계 역할이 더욱 명확해진다. 세징야는 이 시점부터 아예 상대 라인 사이 지역에 위치해 대구가 3-4-1-2와 같은 대형을 형성하게끔 한다. 1선의 제카와 고재현은 상대 센터백을 눌러 공간을 만들어주며, 세징야는 보다 자유롭게 움직여 상대 미드필더 진영에 혼선을 주고 공간을 찾아 들어간다.

이때 핵심은 세징야의 예측력이다. 세징야는 상대 수비보다 경기를 빠르게 읽고 필드 위에 노출되는 빈 공간을 활용한다. 예시로 위 김천전 골 장면을 다시 되돌아보자. 볼이 왼쪽 측면으로 전개되는 순간 세징야는 김천의 라인 사이 지역을 인지하고 이곳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이때 김천의 두 중앙 미드필더는 대구의 측면 공격

에만 신경 쓰고 있었던 탓에, 자신의 라인 사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세징야를 전혀 잡아내지 못했다. 세징야 역시 본인이 직접 측면으로 이동해 대구의 공격을 주도해나갈 수도 있었으나, 그는 동료 선수가 볼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미리 김천의 라인 사이 지역으로 이동했다. 상대보다 1-2초 먼저 움직인 결과가 팀의 득점으로까지 연결된 것이다.

세징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장신 공격수인 제카와 연계하는 편이다. 제카는 1선에서 상대 수비를 등진 채 세징야의 패스를 받아주며, 그와 원투패스를 주고 받거나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격 1/3 지점에서는 대구의 공격이 세징야와 제카가 모두 위치한 왼쪽 진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다. 공간 침투와 결정력을 보유한 고재현은 비교적 이러한 연계 역할에서 벗어난 채 공격의 방점 역할에 치중하는 편이다.



공격 1/3 지점에서 이뤄지는 세징야의 위치 선정. 이때도 상대 수비-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을 노린다.

세징야는 팀의 측면 크로스 시에도 기존과 비슷한 포지셔닝을 보인다. 박스 안에서 상대 센터백과 싸워주기 보다는 그 밀선을 점해 우선적으로 공간을 얻는다. 대개 제카-고재현과 반대 윙백의 쇄도를 통해 박스 안 숫자를 확보하는 편이며, 세징야는 주로 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이후 득점을 위해 움직이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이 경우 세징야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위 영상과 같이 상대 중원 공간이 노출될 경우 컷백 위치를 점하며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징야는 리그 내에서 가장 뛰어난 슈팅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컷백 상황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볼을 받든 골로 연결시킬 수 있다. 세징야는 슈팅 시 정확성에 중점을 두는 편이다.

세징야가 얻는 또 다른 이점은 상대 수비의 견제에서 벗어난 채 크로스를 따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카-고재현 라인보다 아래 위치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상대 수비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박스 안 상황을 파악한 후 알맞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크로스가 좋은 타이밍에 전개된다면 '뛰고 있는 상태'에서 헤더를 시도할 수 있다. 가속도를 붙인 채 헤더를 시도하면 더욱 높은 타점을 노리거나 속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수원과의 36R 2번째 득점 장면이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 제카와 고재현의 아래

위치하던 세징야는 크로스가 전개되자 상대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 갔다. 가속도를 붙인 채 들어갔기 때문에 이기제와의 경합에서 속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홍철의 크로스를 잘라 먹어 득점을 뽑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점은 대구의 측면 크로스가 성공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위치를 빠르게 재정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위 김천전 득점 영상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영상 속 세징야는 크로스가 시도되는 시점에서부터 1선의 아래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덕분에 김천이 크로스를 건어내자 빠르게 중원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상대 미드필더로부터 볼을 지켜내 대구의 볼 소유권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다.

## 대구 역습의 주연에서 조연으로

이번 시즌 세징야는 대구 역습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구가 5-4-1로 수비할 때면 중앙 공격수 자리에 위치해 1선에서 상대 미드필더를 수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때 핵심은 세징야가 왼쪽 윙어로 출전하는 경기라도 수비 시가 되면 5-4-1의 중앙 공격수 자리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습 시 전방 3톱의 역할을 일관되게 가져가기 위함이다.



대구의 역습 형태. 수비 시에는 세징야가 중앙 공격수 자리로 이동해 역습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세징야는 대구가 볼을 탈취한 이후 전방에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양 윙어가 상대 뒷공간 침투에 치중한다면 중앙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역할이다. 세징야는 상대 압박으로부터 볼을 지켜내고 킬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다. 윙어 제카와 고재현은 세징야가 중앙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대구가 볼을 탈취한다면 상대 뒷공간으로 재빠르게 뛰어 들어간다. 이때 제카는 본래 타겟형 공격수지만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측면에서 스피드를 통해 빠른 역습을 끌어 나갈 수 있는 선수다. 대표적으로 측면에서 직접 볼을 치고 들어와 득점에 성공한 34R 서울전 골 장면이 그렇다.

영상의 수원전 골 영상을 되돌아보자. 대구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탈취한 이후 곧바로 전방의 세징야에게 롭볼을 보냈다. 세징야는 수비 2명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도 롭볼을 정확히 받아냈으며, 이후 앞으로 돌아서 윗선으로 볼을 운반해 내는 데에 성공했다. 세징야가 이 과정에서 수원 4명의 수비수들을 끌어다주어 양 측면의 고재현과 제카가 넓은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세징야는 오른쪽에서 공간을 얻은 고재현에게 패스를 넣어줬으며, 고재현은 이를 그대로 마무리해 팀의 선제골을 성공시켰다. 세징야가 역습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 득점 장면이었다.

세징야의 이러한 활약이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지난 시즌과는 분명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은 세징야가 대구 역습의 선봉주자였다. 팀이 수비를 해내면 윗선에 위치해 상대 박스 지점까지 볼을 운반해 나가거나, 직접 공간 침투를 시도해 대구의 역습을 주도해 나갔다. 지난 시즌 울산과의 30R 경기에서 넣은 세징야의 2번째 득점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세징야의 역할이 바뀐 요인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포메이션에 의한 요인이다. 지난 시즌 대구는 수비 시 5-3-2 대형을 활용했으나 이번 시즌은 5-4-1로 나섰다. 세징야는 두 포메이션에서 모두 톱 자리에 위치하는 선수다. 5-3-2는 2톱을 활용하는 탓에 세징야가 전방 쪽에 집중할 수 있으나, 원 톱의 5-4-1에서는 마땅한 연결 고리가 없을 경우 윗선에 고립되어버리고 만다. 바로 여기서 세징야의 역할 변화에 대한 2번째 요인이 나온다. 현재 대구에는 빌드업에 뛰어난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에는 중원에 정확한 킥을 때려줄 수 있는 라마스가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수 에드가가 내려와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해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의 선수구성은 이들과 다르다. 제카는 에드가와 같은 장신 공격수일지라도 스피드와 침투에 강점을 지닌 자원이며, 중원의 이진용과 황재원은 라마스보다 활동량과 수비에 뛰어난 선수다. 선수 개개인의 강점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징야가 역습 시 다른 역할을 소화한 것이다.

최원권 감독대행은 잔류를 확정 지은 뒤에 치른 38R 성남전에 서 세징야를 명단 제외했다. 세징야가 개인적으로 휴식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최원권 감독대행은 "몸은 날아다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 세징야와 7년을 보내면서 쉬고 싶다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받아줬다."라고 말하며 세징야의 휴식 의사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만큼 세징야는 파이널 라운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의 노력이 끝내 결실을 맺는데 성공한 것이다.

결국 세징야는 이번 시즌에도 '대구의 왕'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빛나는 활약을 바탕으로 대구의 9-10월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이 활약이 주효하여 시즌 베스트11에도 선정되었다. 내년이면 세징야가 K리그에 입성한 지 8년째가 된다. 여태까지 대구의 왕에게 쉬어가는 해는 없었다. 내년에도 대구의 왕다운 활약을 이어간다면, 동상 건립도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K**



# 울산의 세 번째 빛이 보이던 날, 10월 8일의 비망족.

올해는 달랐다. 항상 시즌 말미에 주춤하던 울산이 이번에는 전북을 넘어 K리그1 우승에 성공했다. 무려 17년 만의 우승이다. 1위 자리를 확정 짓기 위한 분기점은 단연 파이널 라운드의 전북전이었다. 울산은 전북과의 시즌 마지막 결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우승 스토리에 완성도를 더했다.

특히, 추가시간에만 2골을 넣으며 거둔 기적같은 역전승은 K리그 역사에 남을 명승부가 되었다. 경기의 승패가 뒤바뀌는데 필요했던 시간은 단 3분. 2022년 10월 8일, 울산의 기적이 쓰여진 그날 필드 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 전반전, 서로의 압박에 힘겨워했던 양 팀.

전반전에는 울산과 전북 모두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했다. 상대 골킥 단계에서부터 박스 지점까지 라인을 올려 수비를 시작했으며, 모두 약속된 대형을 통해 상대 빌드업을 누르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 45분간은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볼을 소유하며 경기를 주도하는 그림이 펼쳐지지 않았다. 이날 울산과 전북은 전반 45분간 80.4%, 72.2% 만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모두 상대 압박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전북의 전방 압박 형태. 이날 4-1-3-2 대형으로 압박했으며, 울산은 빌드업시 4-3-1-2에 가까운 형태를 형성했다.

전북부터 이야기 해보자. 이날 전북은 공격 1/3 지점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할 때 4-1-3-2 대형을 형성했다. 기존의 4-4-2에서 두 중앙 미드필더를 위아래로 배치한 형태였다. 이는 울산의 바코를 수비하기 위한 의도다. 울산은 빌드업 시 4-3-3 대형을 기조로 하나, 볼이 후방에 위치할 때면 왼쪽의 바코를 중앙으로 옮겨 연결 고리로 활용하는 편이다. 전북이 미드필더 라인을 1자로 둔 4-4-2를 형성한다면 바코가 상대 수비-미드필더 라인 사이 지역에서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 전북은 4-1-3-2 대형을 통해 3선의 맹성웅이 바코를, 2선의 백승호가 2톱과 함께 울산의 3선 미드필더를 수비하며 두 중앙 미드필더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러한 전북을 상대로 한 울산의 주요 공략 지점은 측면이었다. 울산은 빌드업 시 미드필더 이창용이 수비라인의 왼쪽으로 내려온 형태를 보였다. 이 경우 두 센터백과 이창용이 최후방에 모두 위치해 전북의 양 측면 미드필더를 끌어내는 양상을 형성할 수 있었다. 전북의 2톱은 일차적으로 내려서 상대 미드필더를 수비해야 했

던 탓에, 양옆의 이창용과 정승현은 측면 미드필더의 몫이 됐다.

이렇듯 전북의 측면 미드필더가 울산의 후방 선수에게 끌려나간다면 윙백 설영우와 김태환이 측면에서 공간을 누릴 수 있었다. 이들은 항상 강상윤과 한교원의 배후 지역에서 볼을 받아내려 했으며, 2톱과 후방 라인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해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려 했다.



전북의 4-1-3-2 전방 압박 장면. 울산은 전술적으로 준비가 되었으면서도 전북의 압박을 완전히 풀어가지진 못했다.

그러나 울산은 전술적으로 의도한 대로 전북의 전방 압박을 원할히 풀어나가지 못했다. 전북이 약속된 압박 타이밍을 통해 울산의 측면 공간을 성공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전북은 울산이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팀 단위적인 압박을 빠르게 시작했다. 2톱이 중앙을 틀어막으며 울산의 3선 미드필더를 수비하고, 측면 미드필더가 상대 센터백을, 그리고 전북의 윙백이 울산 윙백을 1v1로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울산 역시 측면서 전북의 압박이 가해질 때 이를 벗어나 말한 빠른 패스 타이밍을 가져가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전북의 압박을 1v1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중앙 연결 고리의 바코 역시 맹성웅에게 마크당한 탓에 윗선으로의 패스 옵션이 명확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핵심은 '2톱이 중앙을 틀어막는다.'라는 사실이다. 중앙을 막고 상대 빌드업을 완전히 측면에 몰아넣어야 전북의 윙백이 압박을 나설 때 울산의 2톱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아 넣는다면, 전북의 반대 윙백이 중앙으로 좁혀 후방에서 울산의 2톱을 상대로 3v2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울산이 경기장을 폭넓게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윙백을 통한 수적 우위 옵션을 누리지 못하게끔 한 것이다.

한편 울산은 4-4-2 대형을 통해 전방 압박을 전개했다. 이날 울산의 주요 목적은 전북이 오른쪽 방향으로 빌드업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전북이 왼쪽으로 빌드업을 전개하게끔 유도했다는 것이다. 울산은 왼쪽 측면 미드필더인 바코를 비대칭적으로 전진시켜 전북의 오른쪽 센터백인 박진섭을 집중적으로 견제했다. 2톱은 중앙을 지켜 상대 두 미드필더를 수비하는데 치중한 탓에, 전북으로써는 자연스레 왼쪽 센터백인 윤영선을 통해 빌드업을 전개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는 이날 전북 백4 라인의 왼쪽이 비교적 빌드업에 약한 선수들





울산의 4-4-2 전방 압박 장면. 오른쪽 센터백인 박진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전북의 왼쪽 빌드업을 유도했다.

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오른쪽 센터백인 박진섭은 작년까지 대전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던 선수다. 정확한 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볼을 직접 끌고 나와 빌드업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수다. 반면 왼쪽 진영의 최철순과 윤영선은 박진섭에 비해 공격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최철순은 전문 왼쪽 윙백이 아니며, 윤영선은 주 발이 왼발이 아닐뿐더러 수비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다. 울산은 이날 이 점을 공략하기 위해 전북의 왼쪽 진영에 의도적으로 공간을 내줘 윤영선이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도록 했다.

한편 울산의 전방 압박과는 별개로 전북은 이날 전반전부터 간결한 공격을 추구했다. 기조는 4-4-2를 기조로 한 2-4-4 대형이었다. 전북은 전방에 강상윤(바로우), 송민규, 조규성, 한교원을 일렬로 세워 울산의 백4 라인을 상대로 1v1 구도를 형성하고 이곳으로 빠르게 볼을 투입했다. 선수 개개인이 울산의 수비수를 끌어내고 공간을 만들어내 간결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 이날 전북 공격의 특징이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김보경 대신 더 좋은 기동력을 보유한 송민규를 2톱 자리의 선발로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전북은 조규성의 타겟 플레이와 나머지 선수들의 빠른 스피드를 통해 울산의 백4 라인을 직접적으로 공략하려 했다.

## 후반전, 주도권을 뺀 울산과 ‘최다 클리어링’을 기록해낸 전북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은 전북은 후반전 내려앉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드필드 1/3 지점에서 공간을 지키는 데에 치중했으며, 볼 소유자를 압박하기 보다는 울산의 빌드업에 대응해 백4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이 적극적인 협력 수비를 펼쳤다. 이 시점에서부터는 밀선으로 내려서 좁은 수비 간격을 형성한 탓에 4-1-3-2가 아닌 일반적인 4-4-2 대형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한편 완전히 공격 태세로 전환한 울산은 이 시점에서부터 3-2-5 공격 대형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양 윙백이 높게 전진하고, 미드필더 이청용이 오른쪽 센터백 자리로 빠져 빌드업을 주도해 나가는 형태였다. 이청용은 전반전 왼쪽 진영에서 빌드업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전에는 오른쪽으로 빠져 공격을 전개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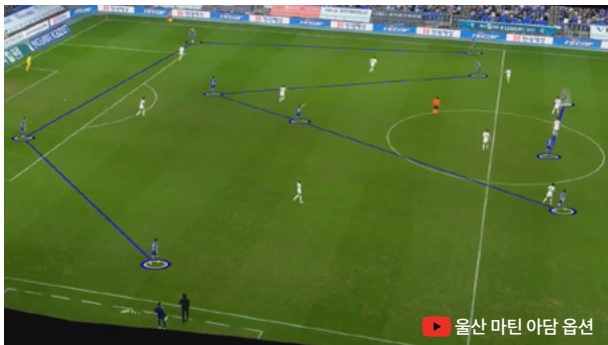


전북의 후반전 수비 형태. 4-4-2로 깊게 내려섰으며, 두 중앙 미드필더가 백4 라인을 견고하게 보호했다.

는 후반전 울산이 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바코가 중앙이 아닌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울산은 오른쪽 진영에 부족한 연계 옵션을 더하기 위해 이청용을 오른쪽 진영으로 이동시켜 경기장 전체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게끔 했다.

전북은 미드필더 라인의 적극적인 협력 수비를 통해 울산의 이러한 공격 전개에 대응했다. 상대 측면 공격에는 전북의 측면 미드필더와 윙백이 나서 협력 수비를 펼쳤다. 중앙 미드필더는 백4 라인으로 내려와 윙백의 압박으로 부족해진 수비라인의 밀도를 메워줬으며, 상황에 따라 전북의 센터백과 위치를 공유해 최종 수비수 역할을 겸하기도 했다. 이후 3-4명의 미드필더 선수들이 모두 백4 라인과의 협력 수비를 위해 후방으로 가담했다면, 전방의 2톱도 연쇄적으로 내려와 기존 미드필더 라인이 담당한 지역을 차례로 커버해 줬다.

울산은 전북의 골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종종 전북이 마크맨을 놓쳐 기회를 내주는 경우도 존재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전북이 크게 내려앉는 탓에 상대 진영에서의 공간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 역시 박스 안의 백4와 두 중앙 미드필더가 뛰어난 수비 집중력을 보이며 울산의 공격을 계속 막아냈다. 이날 전북은 66번의 클리어링을 해내며 이번 시즌 중 가장 많은 클리어링 횟수를 기록했다. (2번째로 높은 클리어링을 기록한 8월 수원FC전에서는 50번의 클리어링을 해냈다. 1위 울산전의 클리어링 횟수와 큰 차이의 수치다.)



울산의 75분 교체 변화. 전방에 레오나르도와 아담을 모두 함께 배치했다.

울산의 본격적인 교체는 75분에 일어났다. 윙백 김태환을 빼고 타겟형 공격수 마틴 아담을 투입하며 전방에 또 하나의 옵션을 추가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울산은 4-4-2 대형으로 변화했다. 아담과 레오나르도가 2톱을, 바코-박용우-이규성-엄원상이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설영우-김영권-정승현-이청용이 백4 라인에 위치한 형태였다. 이청용이 오른쪽 윙백 자리로 이동해 김태환의 자리를 메웠다. 앞서 언급했듯 이청용은 공격 전개시 계속 이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울산이 일방적으로 볼을 소유하는 양상에서 이청용의 역할이 전술적으로 크게 달라진 바는 없었다.

울산은 마틴 아담을 통해 롱 볼 옵션과 상대 박스 지점에서의 힘 싸움을 모두 누리려 했다. 위 영상과 같이 빌드업 상황에서 아담을 겨냥한 롱 볼을 전개할 때면 바코와 레오나르도, 상황에 따라 설영우까지 밀집해 세컨볼 싸움을 돕는 모습을 보였다. 울산은 이 시점에서부터 아담과 바코가 위치한 왼쪽 진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 경기는 결국 세트피스에서 끝났다.

울산과 전북은 끊임없는 전술 싸움을 치르며 100분에 가까운 경기를 보냈지만, 결국 경기의 승패를 가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울산의 코너킥 상황이었다. 경기 타이머가 100분 향해 달려가는 후반 추가시간 9분 상황. 이규성의 코너킥을 아담이 그대로 머리로 밀어 넣어 팀의 역사적인 역전골을 만들어냈다.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아담의 결승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울산은 아담의 투입 이후 계속 코너킥 상황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며 전북의 골문을 노렸다. 경기 중반 울산이 보인 코너킥 패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코너킥이 준비되는 상황에서 아담은 박스 중심부, 다시 말해 PTA 지역(축구에서 득점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때 전북 역시 190cm의 아담이 박스 중심부에서 멀어져있다 한들 그를 절대 자유롭게 두지 않는다. 전북은 185cm의 장신 센터백 윤영선을 통해 아담을 마킹하며 그의 움직임에 대비했다.



아담의 투입 이후에 이뤄진 울산의 코너킥 패턴. 아담의 역전골 장면은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핵심은 아담이 ‘뛰어 들어가며’ 박스 중심부(PTA 지역)로 진입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2가지 포인트가 있다. 하나는 1차적으로 박스 중심부에 위치해있던 동료 선수들이 아담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전북 선수들이 움직이는데 제약이 따르도록 블로킹을 걸어줄 수도 있고, 니어 포스트로 잘라 들어가 상대를 끌어낼 수도 있다. 핵심은 아담이 박스 중심부로 들어온 직후에 일말의 공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때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나온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선수’가 바로 거구의 체격을 가진 아담이라는 것이다. 아담은 순간의 움직임을 통해 마크맨을 떨궈낼 수 있는 공격수다. 거구에서 나오는 힘을 통해 마크맨을 밀어낼 수도 있으며, 순간순간 움직임에 페이크를 줘 마크맨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다.

후반전 울산이 코너킥 상황에서 보인 명제는 딱 2가지다. ‘동료 선수들이 기존 박스 중심부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아담이 박스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인 능력을 통해 마크맨을 떨궈내는 것.’ 여기서 킥의 킥이 아담의 머리에게 정확히 연결된다면 비로소 아담을 통한 코너킥 득점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결승골로 연결된 영상 속의 99분 상황을 다시 되돌아보자. 이규성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담은 박스 외곽 쪽에 위치해있다. 옆에는 마크맨 윤영선이 따라 붙으며 아담의 움직임에 대비하고 있다. 이때 박스 중심부에는 바코와 정승현이 위치해 아담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채비를 하고 있다. 이후 이규성의 킥이 전개되자 바코는 니어 포스트 쪽으로 이동해 자신의 마크맨을 끌어냈으며, 중심부의 정승현은 마크맨을 블로킹해 움직임에 제약을 걸었다. 그리고 아담은 박스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윤영선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려 자유로운 상황에서 헤더를 시도하는데 성공했다. 구스타보의 지역 수비 범위를 벗어난 이규성의 정확한 킥력 역시 주목해야 할 포인트 중 하나다.

우승을 결정짓는 ‘현대가 더비’라는 명성에 걸맞게 양 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력을 쏟아부은 경기였다. 전북은 수비적인 면에서 견고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전이었다. 전반전의 전방 압박과 후반전의 후방 수비 상황에서 모두 좋은 안정성을 보였다. 그래서 전북으로서는 경기 막판 울산에게 결정적인 2골을 내준 것이 더욱 아쉽다. 전술이 아닌 정신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는 국면에서 울산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울산은 지난 3년연속 준우승의 설움을 털어버리기 위해 종로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이 울산을 괴롭혔던 ‘시즌 말 전북에게 당하는 패배’가 재차 실현될 것처럼 보인 상황이었기에, 경기 중 트라우마를 극복한 울산 선수들의 정신력은 우승팀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었다.

근 10년간 통용되었던 ‘어차피 우승은 전북’이라는 K리그의 각본이 올해는 반전 결말을 맞이했다. 2022년 10월 8일. 길고 길었던 울산의 ‘우승 도전’이 드디어 성공의 빛에 완전히 가까워지는 날이었다. **K**



# K리그 2 전술 트렌드 2022

기술위원 칼럼 \_ K리그2 전술 트렌드

김 호 영

2022 K리그2의 포메이션 트렌드는 명확했다. 올 시즌 K리그2 전체 11팀 중 무려 8팀이 백3 포메이션 기반 전술을 활용했고, 부산과 전남, 경남만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백4라인을 구축했다. K리그2의 백3 트렌드는 사실 새로운 바람은 아니다. 작년에도 K리그2 전체팀 중 절반가량이 백3라인을 활용했기 때문에, 트렌드의 유지 혹은 발전이라 봐야 정확할 것이다. 올해 K리그1에서는 많은 팀이 백4라인으로 변모한 것과 다르게, K리그2에는 올해도 백3라인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올 시즌 K리그2 백3 활용팀들은 3-4-3 또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했으며, 두 대형을 유기적으로 오가는 팀도 있었다. 뒷선에서 수비할 때는 5-2-3 대형을 통해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후방에서는 5-4-1로 내려앉아 측면과 중원 공간을 내주지 않는 형태가 올 시즌 K리그2에서 나타난 가장 보편적인 백3 활용법이었다. 하지만, 이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일 뿐, 올 시즌 K리그2 백3 활용팀 모두가 이와 같은 축구를 구사했다는 것은 아니다. 8팀 각각 백3라인을 통해 추구하는 바가 달랐고, 이에 따라 저마다의 경기 운영 방식을 보였다. 백3 활용법의 서로 다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세 팀을 소개하려 한다. ‘광주FC’, ‘FC안양’ 그리고 ‘서울이랜드FC’다.



## “백3 수비라인 활용”, 비슷해 보여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

### ● 광주FC — “공격적인” 백3 전술

광주는 가장 공격적인 백3 전술을 구사한 팀이다. 수비 시에는 백5 블록을 통해 중원을 견고히 하는 수비 형태를 보였다. 1선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며, 공간과 시간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해 정확한 압박 타이밍을 노린다. 수비 진영을 형성하다가도 정확한 압박 타이밍을 통해 상대 볼 소유자를 몰아붙여 볼을 탈취해내는 것이다. 필드 플레이어 모두가 언제 어떻게 압박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선 광주가 압박을 시작할 때 순간적으로 수적 열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수비 상황뿐 아니라 광주가 도리어 전방에서 볼을 탈취 당할 때에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광주는 공격 1/3 지점에서 볼을 탈취 당했을 때, 미드필더와 수비의 적절한 포지셔닝을 통한 즉각적인 압박에 강점을 보였다. 이번 시즌 광주는 K리그2 내에서 그룹/팀 단위의 압박이 가장 뛰어난 팀이라 할 수 있다. 리그 최소 실점(32실점) 기록했으며, 최다 파울(557회) 팀 자리에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격 시에는 3-2-5 대형 아래서 매우 유기적인 형태를 보인다. 양 윙백은 1선 가장 높게 위치하여 상대 수비라인과 수평적으로 위치한다. 이 경우 상대 윙백을 잡아 측면에 공간을 열어줄 수 있으며, 광주의 좌우 센터백이 넓게 전진해 이 공간을 활용한다. 광주는 볼 사이드에 3-4명의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형태를 만들고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윙어는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며 측면 공격 옵션을 제공한다. 측면의 윙백은 언제든지 중앙으로 잘라 들어갈 준비를 하며, 윙어가 하프 스페이스를 전담하는 탓에 윙백의 침투 루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광주가 공격 시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이는 공략 지점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볼 사이드 쪽의 측면에서 직접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 측면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간을 통해 득점하는 것이다. 광주는 측면 공격을 우선시해 이곳에서부터 파생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광주는 동시다발적인 압박을 통해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형성하고 볼을 탈취해낸다.



### ● FC안양 — “안정적인” 백3 전술

한편 안양은 안정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팀이다. 덧붙이자면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며, 중원에서 형태를 갖추고 수비-미드필드 쪽에서의 공간을 최소화 하는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보인다. 물론 광주와 같이 후방에서의 빌드업 빈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종종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는 안양이 이번 시즌에 들어서며 갖춘 특징 중 하나다. 안양의 공격 작업은 크게 3가지다. 빠르고 간결한 빌드업을 통한 측면 플레이와 전방 3톱이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꾸는 스위칭 플레이, 그리고 장신 공격수인 조나탄, 박재용을 활용한 타겟 플레이다. 전반적으로 안양의 공격 작업은 간결한 빌드업을 전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이다. 후방에서 많은 볼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전방에 공간이 노출된다면 그곳으로 지체없이 볼을 투입한다.

측면 전개 시에는 김동진-김경중(백성동)을 활용한 왼쪽 공격 빈도가 높은 편이고, 오른쪽 진영에서 전개할 경우 아코스티의 솔로 플레이가 주요 수단이다. 측면 플레이를 통해 크로스 찬스를 만들어낸다면, 반대 윙백까지 박스 안으로 좁혀 들어와 득점을 노리는 패턴을 보인다. 이는 안양이 지난 시즌에도 공격 시에 자주 보인 득점 패턴이다.



안양은 측면에서의 패턴 플레이를 통해 크로스 기회를 만들어낸다.

안양은 공격 쪽에 많은 관여를 하는 외국인 3인방 (조나탄, 아코스티, 안드리고)에 대한 비중이 높은 팀이다. K리그2 내에서 가장 강력한 외국인 선수를 보유했으나, 한편으로는 우승과 승격에 도전하는 팀으로서 공격 옵션의 다양성이 조금 아쉬워 않았나 싶다. 여기에 리그 중반 부상 공백과 체력적 부하 문제가 겹쳐 발생하면서 우승 경쟁에 멀어지고 말았다.

안양은 시즌 초중반 두 번째 라운드로빈(11R~20R)에서 2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부진했으나, 이후 세 번째 라운드로빈인 21R 대전전을 시작으로 15경기 무패를 거두며 2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안양은 이 과정에서 7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으며, 그 중 4번의 1대0 승리를 거뒀다. 안양이 얼마나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 서울이랜드FC — “선수비 후역습” 백3 전술

한편 서울E는 ‘선수비 후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팀이다. 3-5-2를 기본 포메이션으로 하나, 수비 시에는 5-4-1 대형을 통해 공간을 틀어막는 데에 치중한다. 기존 3-5-2의 2톱 중 한 명이 측면 윙어 자리로 빠지면서 만들어지는 형태다. 대개 타겟형 공격수인 까데나시가 5-4-1의 원 톱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서울E는 수비 시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구사한다. 밀선에서는 무리한 수비를 자제한 채 상대를 밀어내며, 미드필더 라인 쪽에서의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상대 공격에 대응한다. 서울E는 중원의 김선민을 필두로 허리 라인에서 높은 압박 강도를 보이는 팀이다. 낮은 라인의 수비를 구사한 리그 초-중반에는 경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나, 이후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펼친 36R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4연승을 거뒀다.

김인성, 이동률, 김정환 등의 빠른 선수들을 활용한 역습이 서울E의 주요 득점 패턴이다. 서울E는 5-4-1(5-2-3)대형으로 수비하다가도 볼을 탈취한 직후 빠르게 윙어에게 볼을 보내 역습을 전개했다. 앞서 얘기했듯 미드필더 라인 쪽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는 탓에, 양 윙어가 자연스럽게 높은 지점에 위치하게 되면서 위협적인 역습을 나설 수 있었다.



서울E는 볼 탈취 직후 윙어의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을 전개한다.

한편 역습은 위협적인 편이나 일반적인 공격 상황에서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전반적으로 패스의 섬세함이 부족해 빌드업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때문에 서울E는 올 시즌 팀플레이에 의한 득점보다는 솔로 플레이나 2-3명 만의 콤비네이션을 통한 골이 많았다. 공격 시에는 대개 이동률이 프리롤로 움직이며, 윗선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편이다.

서울E의 이러한 공격 문제는 득/실점 수치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서울E는 이번 시즌 리그 40경기에서 46골 47실점을 기록했다. 실점은 부천과 함께 리그 내에서 4번째로 낮은 수치이나 득점은 8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까데나시 이외에 만족할 퍼포먼스를 보인 외국인 선수가 부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E는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인 공격수 아센호

는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외에도 경기 막판에 실점하여 비기거나 패하는 경기가 많았다. 안정적인 수비 형태를 통해 실점을 내주지 않는 축구를 펼쳤지만, 이기고 있는 와중에도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 화근이었다. 후반전의 체력 저하 요인 역시 서울E의 빼놓을 수 없는 문제 중 하나다.

## “강한 압박과 많은 후방 빌드업” — 박진감은 얻었으나, 세련미는 부족했다.

2022 K리그2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전술적 트렌드는 강한 압박과 이로 인해 많아진 후방 빌드업이다. 지난 시즌 K리그2의 압박 강도(PPDA) 수치는 9.35였으나, 이번 시즌은 7.81이다. 올 시즌 K리그1 압박 강도가 9.71로 기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시즌 유독 K리그2에서 강도 높은 압박이 펼쳐졌다고 볼 수 있다. 광주(6.95)가 가장 강도 높은 압박을 기록한 팀이었으며, 가장 낮은 수치는 김포(9.27)였다.

이번 시즌 K리그2는 수비 상황에서 매우 촘촘한 간격이 특징이다. 대개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을 콤팩트하게 형성하고, 이후 3선에서부터 전진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려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윗선에서부터 상대 빌드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다. 이 경우 상대가 우리 수비지역으로 볼을 투입하지 못하게끔 위에서 누를 수 있으며, 이곳에서 볼을 탈취한다면 한두 번의 패스를 통해 득점 기회도 노려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K리그2에서는 후방에서부터 시도하는 빌드업이 잦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경우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상대 수비를 끌어내 뒷공간을 노리는 시도 역시 가능하다. 이번 시즌 K리그2에서는 미드필더들이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와 후방 빌드업을 돕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 대전, 충남아산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 외에도 부천에는 최고의 패스 능력을 보유한 닐손주니어가 있으며, 경남은 4-2-2-2 체제 아래에서 두 중앙 미드필더가 빌드업 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빌드업 시도와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빅 리그들의 전술 트렌드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보다 강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체력과 조직력, 그리고 볼 소유 능력이다. 체력과 조직력을 통해 강한 압박을 가하고, 볼 소유 능력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꾸준한 경기력을 보일 수 없다.

이번 시즌 K리그2에 대한 개인적 감상은 아쉬움도 있다. 위에서 서술한 요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운영의 원숙미와 세련미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현대 축구는 결국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압박하고,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빌드업을 전개하는 끊임없는 구도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K리그2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 시즌이기도 했다. 전방 압박의 강

도가 높아지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빌드업 패턴도 다양해지기 마련이다. 압박과 빌드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경기의 질적 수준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K리그2는 도전적인 전술 변화를 시도하기에 K리그1보다 더 용이한 무대라고 생각한다. 강등의 위험이 없을뿐더러, 개인 능력으로 경기를 좌우할 수 있는 최상위급 선수를 영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 전술적 운영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음 시즌 K리그2에는 4팀이 새롭게 합류한다. 성남과 김천이 K리그1에서 내려왔으며, 천안과 청주가 신입생으로 첫선을 보인다. 새로운 팀들은 K리그2 무대에서 어떤 전술을 보여줄까. 그리고 기존 팀들의 대응 방식과 변화된 전술은 무엇일까.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전술적 다양성이 풍부한 2023 K리그2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K**



기술위원 칼럼  
김 호 영

2001~2005	KFA 전임지도자
2006~2008	FC서울 코치
2010~2012	광저우 헝다 수석코치
2013	강원FC 감독
2014	청두 텐청 수석코치
2015~2016	동국대학교 감독
2018~2019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감독관
2020	FC서울 수석코치
2020	FC서울 감독대행
2021	광주FC 감독
2022	한국프로축구연맹 TSG기술위원





# 인생을 걸었던 대전이 K리그1 승격, 그 뒤에 숨겨진 이민성 감독의 전술

2020년 기업 구단으로 전환한 대전에게 승격은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K리그1 준척급 자원들을 여럿 영입했으며, 2021시즌에는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지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봉이 곧 성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좀처럼 K리그2 우승과 다이렉트 승격은 쉽지 않았다. 지난 시즌 맞이한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강원에게 역전의 쓴맛을 봤다. 그런 대전이 올해 드디어 김천을 꺾고 K리그1 승격에 성공했다. 2015년 강등 이후 8년 만의 승격이며, 이제 대전은 이제 K리그1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이민성 2년 차’를 맞이한 이번 시즌 대전은 작년보다 분명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당장 리그 성적만 봐도 그렇다. 지난 시즌과 같은 2위지만 기록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시즌 대전은 리그 40경기에서 승점 74점을 획득했으며, +25골의 득실차를 기록했다. 1위 광주를 제외하자면 이번 시즌 K리그2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다. 지난 시즌 대전이 36경기에서 58점의 승점을, +7골의 득실차만을 기록했다는 점과 비교해본다면, 보다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 2위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전이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법

이번 시즌 대전의 주요 개선 사항 중 하나는 상대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패턴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해 대전은 지난 시즌보다 더 높은 볼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특히 김포, 안산, 충남아산과 같은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는 60-70%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공격에 크게 치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전은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꽤나 변칙적인 형태를 보인다. 시작은 중앙 미드필더인 주세종에서부터 이뤄진다. 대전은 3-4-3 대형으로 빌드업을 시작하나, 최후방에서 볼을 소유할 때면 중앙의 주세종이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와 백4와 같은 대형을 형성한다. 주세종과 백3의 중앙 수비수가 백4의 두 센터백 자리에 위치한 형태다. 이는 광주의 방식과 같이 상대 1선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상대가 가장 일반적인 5-2-3 대형을 통해 수비를 시작한다면, 주세종을 내려 최후방에 4명의 숫자를 확보하고 4v3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 대개 이 수적 우위를 통해 주세종의 공간을 확보하고 이곳에서부터 빌드업을 시작하는 편이다. 만약 상대가 전남과 같이 1선에 선수 1명만을 둔 4-5-1 대형을 형성하는 팀이라면 이러한 미드필더의 움직임 없이 백3 대형 그대로 빌드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주세종이 내려온다면 측면 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백3의 좌우 센터백은 측면으로 넓게 벌려 넓이를 확보하고 윗선으로 전진할 채비를 한다. 이번 시즌 대구에서 이적해온 김재우가 이러한 전술 아래서 강점을 발휘하는 편이다. 김재우는 센터백을 주요 포지션으로 하나 지난 시즌 대구에서 윙백 자리를 소화했을 만큼 공격적으로도 뛰어난 자원이다. 좌우 센터백이 측면으로 벌려 넓이를 확보한다면 3-4-3의 윙백이 중앙 쪽으로 좁혀 숫자를 확보해 준다. 중앙 미드필더 지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1선으로 올라가 하프 공간을 점유할 수도 있다. 이번 시즌 대전이 이현식, 김인균과 같은 2선 자원을 윙백으로 활용하는 이유다.

관건은 중앙 미드필더 지역으로 좁힌 윙백의 위치다. 중앙으로 좁힌 윙백은 상대 측면-중앙 미드필더 사이를 점유하여 이곳에서





대전의 충남아산전 빌드업 형태. 미드필더 주세종이 내려와 백4 대형을 형성했다.

볼을 받아낼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 측면 미드필더를 중앙 쪽으로 유인해내 대전의 좌우 센터백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 측면 미드필더가 안쪽을 지키지 못한다면 윙백이 중원 쪽에서 직접 볼을 받아낼 수 있다.

위 영상의 충남아산전 빌드업 장면을 되돌아보자. 대전은 3-4-3으로 빌드업을 시작하지만, 미드필더 주세종이 최후방으로 내려와 4-3-3에 가까운 대형으로 전환했다. 이때 대전은 좌우 미드필더 위치에 위치한 선수를 통해 중원 하프 스페이스(충남아산의 중앙-측면 미드필더 사이 지역)를 점유하고 측면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왼쪽으로는 윙백 서영재가 좁히고, 오른쪽으로는 윙어 배준호가 내려와 4-3-3의 좌우 미드필더 위치에 위치한 형태다. 대전은 중앙에서 지속적인 볼 점유를 통해 상대 수비 시선을 중앙 쪽으로 끌어들이고 하프 스페이스의 서영재(LWB)에게 볼을 연결하는데 성공했다.

대전은 대개 이러한 패턴의 플레이를 자주 시도하는 편이다. 1선의 중앙 자리에는 연계 능력이 뛰어난 공민현이나 마사를 배치한다. 이들은 빌드업 시 연계에 치중해 전방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상황에 따라 폭넓게 움직여 2-3선 빌드업에 가담하기도 한다. 이들의 위치에 따라 대전의 공격 대형이 3-4-3과 3-4-1-2를 오가게 되는 것이다. 1선의 중앙 선수가 연계를 중점으로 움직인다면, 레안드로, 배준호, 김승섭과 같은 발 빠른 윙어들이 상대 수비라인 뒷공간 침투에 집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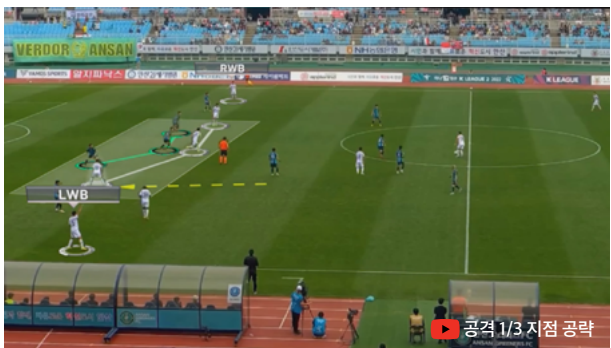


레안드로를 통한 대전의 뒷공간 볼. 중원에 숫자가 많아 세컨볼 싸움에 용이하다.

위와 같은 형태에 따라 대전은 공격 시 중원에 많은 숫자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양 센터백이 측면을 담당해 공격의 넓이를 확보해 준다면, 나머지 선수들이 중앙 쪽에 치중해 숫자를 확보하게끔 하는 것이다. 만약 전남전과 같이 미드필더가 수비라인으로 내려오지 않을 때면 왼쪽 센터백 김재우 만이 비대칭적으로 전진해 백4와 같은 대형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남전의 경우 왼쪽 윙백인 서영재가 중앙으로 좁히고, 왼쪽 센터백인 김재우가 측면을 담당해 공격시 '김재우(LCB) - 권한진(CB) - 조유민(RCB) - 민준영(RWB)'로 이뤄진 백4 대형을 형성했다.

중원에 많은 숫자를 확보한 대전은 공격 시 여러 옵션을 누릴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1선의 마사/공민현을 기점으로 중앙 쪽에서 볼 점유율을 확보할 수도 있으며, 상대 측면 미드필더를 중앙으로 끌어내고 측면의 센터백(윙백)에게 공간을 열어줄 수도 있다. 또는 위 영상처럼 1선에 박혀있는 레안드로에게 롱 볼을 보내 이후의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었다.

핵심은 중원의 많은 공격 숫자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공격 옵션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대전은 후방에서부터 연쇄적인 수적 우위를 통해 차근차근 만들어나가기보다는, 윗선 쪽에 많은 숫자를 두고 노출된 공간으로 빠르게 볼을 투입하는 팀이다. 이는 후방에서 좋은 킥력을 보유한 조유민, 주세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빌드업이기도 하다. 이번 시즌 조유민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하며 대전 빌드업의 핵심이 됐다.



대전의 공격 1/3 지점 공략 형태. 미드필더 한 명이 전진하여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한다.

## 공격은 자유롭게, 수비는 강하게

한편 대전이 공격 1/3 지점으로 진입할 때면 선수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레안드로는 중앙과 측면을 자유롭게 오가며 전방에서 많은 볼을 받아내는 편이다. 상황에 따라 측면으로 넓게 빠져 상대 윙백과의 1v1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2선으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레안드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탓에 윙백은 그의 위치에 맞춰 공격 동선을 정하는 편이다. 만약 레안드로가 측면으로 빠져 공격 숫자가 부족해질 때면 미드필더 이진현이 1선으로

전진해 자리를 메워준다. 이진현은 활동량과 공격 능력이 뛰어난 대전의 중원 자원이다.

대전은 공격 1/3 지점서 이진현의 전진을 필두로 1선에 많은 숫자를 배치한다. 상황에 따라 5-6명의 선수까지 배치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며, 이 속에서 선수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상대 수비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3명의 센터백과 홀딩 미드필더 하나 정도를 제외하라면 모두가 1선에서 득점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대전의 공격 1/3 지점 패턴이 가장 잘 드러난 안산전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을 되돌아보자. 레안드로가 볼 경합을 위해 측면으로 빠지자 이진현이 1선으로 전진했다. 이진현은 대전이 볼을 뒤로 뺀 이후에도 1선에 머물러 있었으며, 자연스레 안산의 3CB과 수적 동률 구도를 만들고 상대 수비를 끌어내 윙백의 침투 경로를 열어줬다. 이후 뒷공간으로 쇄도한 윙백의 크로스를 받아 득점을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레안드로의 측면 움직임을 메우기 위해 전진한 것이었지만, 자연스레 1선에서 전술적 우위 상황을 만들면서 득점을 뽑아내는 데까지 성공한 것이다.



대전의 전방 압박 형태. 상대 박스 지점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하며, 상황에 따라 여러 대형을 형성한다.

한편 대전은 상대에 따라 수비 시작 지점을 유연하게 설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안산, 김포와 같이 간결한 공격을 추구하는 팀을 상대로는 공격 1/3 지점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한다. 이때 일관된 수비 대형은 없다. 상대에 따라 위 영상과 같이 3-4-1-2 대형으로 압박을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3-4-3, 3-5-2 등의 대형을 유연하게 기용하기도 한다. 어느 대형을 활용하든 대전 수비의 핵심은 2가지다. '넓은 활동량'과 '강한 압박'이다. 대전은 수비 시 선수 개개인의 폭넓은 활동 범위를 통해 강한 압박을 가하는 팀이다.

대전은 특히 윙어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좌우 센터백 쪽에서 수비 시 활동 범위를 폭넓게 가져가는 편이다. 이들은 공간을 지키기보다 항상 상대 선수를 압박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어, 볼 소유권을 빠르게 되찾아오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구조적으로 이 세 포지션의 선수들이 수비시 넓은 활동 범위를 소화한다면, 측면 쪽에서 강한 압박을 전개할 수 있다. 3-4-1-2, 3-4-3, 3-5-2 등 어느 대형을 형성하든 상대의 중앙 옵션을 막고 측면 빌드업을 강

제하는 것은 기본이다. 관건은 측면으로 볼이 넘어갔을 때 얼마나 강한 압박을 전개하느냐이다.

영상의 안산전 압박 장면을 통해 예시를 들어보자. 대전이 3-4-1-2 대형을 통해 압박을 시작하는 상황이다. 상대 골키퍼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자 대전의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좌우 센터백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나섰다. 중앙 미드필더가 공간을 지키는 선택이 아닌 직접 압박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측면 압박 상황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후 안산이 대전의 압박을 버텨내고 반대편으로 볼을 전환하자 대전의 톱이 수비를 위해 측면으로 빠졌고,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이 지체없이 나서 팀의 압박 강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전은 압박 상황으로 끌고 갔을 때 선수 개개인이 끊임없는 스프린트를 시도해 상대를 몰아붙였다

한편 부산, 경남과 같이 볼 소유에 능통한 팀을 상대로는 미드필드 1/3 지점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하는 편이다. 이때 대전은 5-2-3이나 5-3-2 대형을 형성하여 중원에서 공간을 지키는 데에 치중한다. 1선에서부터 상대 최후방 라인을 강하게 누르진 않지만, 수비 진영으로 볼이 투입됐을 때 강한 압박 강도를 보이며 볼을 탈취해내는 편이다. 이때도 전방 압박 시와 같이 중앙 미드필더와 좌우 센터백의 활동 범위를 폭 넓게 가져가 압박을 가한다. 만약 상대가 후방으로 볼을 빼 수비 1/3 지점에서부터 빌드업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면, 대전은 빠르게 전방 압박 구도로 전환하여 다시 수비를 시작한다.

대전은 끝내 오랜 숙원인 K리그1 승격을 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2022시즌을 되돌아본다면 분명 순탄치 만은 않았다. 개막 후 첫 4경기에서 단 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으며, 지난 8월에는 6경기 중 3패를 기록해 3-4위 자리를 오가기도 했다. 여기에 6-8월 원정 경기에서는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으며 승격 도전기에 빨간불이 켜지는 듯 보였다.

그래서 이번 대전의 승격이 더욱 의미가 있다. 매우 수월하게 K리그2 우승과 다이렉트 승격을 이루어냈다면, 선수단의 노력보다는 모기업의 든든한 지원이 승격의 이유로 평가받았을 지 모른다. 대전은 시즌 중 수많은 부침을 이겨내며 반등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전환기는 가을부터였다. 9월 이후로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시즌 막판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김천과의 2연전에서 합계 6-1 대승을 거뒀다. 이중 김천 원정에서 거둔 4-0 승리는 역대 승강 플레이오프 중 최초의 4골차 경기이기도 하다.

벌써 축구계에는 내년 대전이 리그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화제다. 분명 일반적인 '승격팀'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는 팀이다. 팬들의 기대와 같이 선두권 경쟁을 위한 선수단을 구성한다면, K리그1의 순위 싸움은 더욱 치열하고 흥미로워질 것이다. 대전 미드필더 마사의 지난 시즌 승격에 인생을 걸겠다고 했다. 대전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내년 K리그1 무대에서는 이런 인터뷰를 볼지도 모르겠다. '우승, 인생 걸고 합시다.' **K**



